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 - 지각된 속박감(perceived entrapment)의 매개효과 -

천 속 희¹⁾ · 차 보 경²⁾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2)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Abstract =

Inferiority,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ntrapment

Cheon, Suk Hee¹⁾ · Cha, Bo Kyoung²⁾

1)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Purpose: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inferiority to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in female adolescent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ntrapment in relation to inferiority and other variabl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526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demographic factors, inferiority, perceived entrapment,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Results:** Students with high inferiority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erceived entrapment,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Perceived entrapment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inferiority, depression and psychosomatic symptoms. **Conclusion:**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for managing inferiority and perceived entrapment in this population.

Key words : Adolescent, Depression, Entrapment

주요어 : 청소년, 열등감, 지각된 속박감, 우울, 정신신체 증상

교신저자 : 차보경(E-mail: bkcha@hanseo.ac.kr)

투고일: 2008년 5월 27일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26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 Bo Kyoung(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eon, Seosan city, Chungcheongnam-Do 356-706, Korea

Tel: 82-41-660-1071 Fax:82-41-660-1087 E-mail: bkcha@hanseo.ac.kr

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다(Lee, 2003).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은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보다 더욱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Lee, 2003), 사회적 이상과 성취 수단과의 괴리로 인해 자신이 그려오던 이상과 현재 자신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함을 자각하게 되면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Kim & Kim, 2006; Yim, 2000).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열등감 유발 요인은 얼굴, 키, 피부, 신체적 결함 등의 신체적 요인, 학업성적, 이해력, 학교 우열, 판단력 등에 대한 학업적 요인, 부모의 학력 및 직업, 경제력, 가정 분위기 등 가정적 요인, 사교성, 성격, 인기, 타인의 인정 등에 대한 사회적 요인으로 대별된다(Kim, 1995). 국내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열등감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Kim & Kim, 2006), 열등감 요인 중 청소년의 학업적 열등감이 높게 보고되고 있어(Kim, 2002; Kim & Kim, 2006) 성인기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열등감을 조절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열등감은 일상생활의 부적응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Yim, 2000), 정상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Park, 2000), 우울, 불안, 공포, 무기력, 집중력 저하, 의욕저하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Gilbert, Irons, Olsen, Gilbert, & McEwan, 2006; Kim, 2004; Kim & Kim, 2006), 자살 생각이나 자살 행동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odwin & Marusic, 2003).

특히 열등감과 관련된 건강문제로 알려진 우울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정서장애로(Cho et al., 2001), 성인과는 다르게 우울감을 직접 호소하기 보다는 불면증, 피로, 두통, 복통 등의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흔하다(Adele, 1997). Cho 등(2001)에 의하면 일 도시지역 청소년의 우울 유병률은 38.9%였으며, 이중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43.8%, 여학생 49.6%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중에서는 고등학생의 우울 경험이 특히 높았는데, 성별 차이가 있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흔한 건강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우울은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정체감의 발달과 더불어 존재에 대한 회의로 인해 표출되는 발달적 특징을 가지며(Chun, 2001), 유발 요인도 생활수준, 한쪽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중, 건강상태 지각, 집단따돌림 경험(Cho et al., 2001; Ha, Oh, & Song, 2003; Kim,

O. S. & Kim, K. H. 2000; Park, Koo, & Jang, 2007) 등으로 보고된 바 있듯이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4).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은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광범위한 주변 상황에 둘러싸여 이들과 다양한 상호 작용을 함과 동시에, 부모나 주위의 도움이 많은 아동과는 달리 스스로의 자질, 능력 및 노력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내, 외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부족한 자신의 일면에 대해 자각하고, 열등감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 등과 같은 부정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열등감은 자신의 조건, 환경, 능력 등이 타인에 비해 부족하고 열등하게 느껴질 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Kim & Kim, 2006). 이때 열등감이 자신의 현실과 부족한 점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동기를 제공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열등감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자아실현의 계기가 되지만,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기에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열등감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은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소년기의 건강 문제들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우울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고(Cho et al., 2001), 여학생의 열등감(Goodwin & Marusic, 2003; Kim & Kim, 2006)과 신체적 증상(Wilson, Pritchard, & Revalee, 2005) 정도가 더 높았다. Cheon(2006)은 이러한 성별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여성에게 더 강하고 적용되는 사회 가치관과 더불어 청소년 여성 개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지적 특성과 성격적 특성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 지각된 속박감(perceived entrapment)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관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외모주의 사회가치관 영향으로 청소년기 여성은 미모와 날씬함을 동경하게 되어 비만하지 않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염려와 집착을 하게 된다(Kim, 1999).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여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속박감을 지각할 수 있으며, 지각된 속박감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Cheon, 2006)

속박감은 자신의 현재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매우 동기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정적 정서인데(Brown, Harris, & Hepworth, 1995), 선행연구에서 우울 발생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주로 관련 변수와 우울의 매개 변수로 제시되어 왔다(Cheon, 2006). Brown 등(1995)은 여성 우울 환자에서 심각한 생활사건에 대한 속박감이 우울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Gilbert와 Allan(1998)은 패배하고 간혀 있으면서 자신을 열등하다고 느낄 때 우울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면서, 부정적 정서인 속박감이 이러한 부적응에 중요한 관련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Willner와 Goldstein (2001)은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게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속박감이 내적 심리적 불안정에 관여되고, 우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듯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열등감과 부정적 건강 문제와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열등감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질병형 성격, 불안, 성격장애, 화병 징후(Kim & Kim, 2006), 심리적 성숙(Lee, 2003), 대인관계(Kim, 2002; Park, 2000) 등과의 관련성 등을 다루었고, 열등감을 감소 또는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Kim, 1995; Kim & Park, 2004) 등이 소수 진행되어 왔으며, 열등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열등감의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서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한 5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열등감 측정도구

열등감은 신체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상태나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심리적 상태 또는 자기의 열등, 결함에 의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1995)이 개발한 열등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열등감, 사회적 열등감, 가정적 열등감, 학업적 열등감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10개 문항으로 총 40문항의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열등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4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신체적 열등감 0.76, 사회적 열등감 0.90, 가정적 열등감 0.86, 학업적 열등감 0.87 이었다.

● 우울 측정도구

우울은 개인이 지각하는 저하된 기분상태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침울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의미하며 (Battle, 1978), 본 연구에서는 Radloff(1977)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정서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한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과 Lee(1992)가 한국 상황에 맞도록 표준화한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 경험을 측정하는 20문항의 4점 척도로,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 '때때로(1-2일)' 1점, '상당히(3-4일)' 2점, '대부분(5-7일)' 3점으로, 점수 범위는 0-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7이었다.

● 정신신체증상 측정도구

정신신체 증상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정신신체적 증상의 호소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 H. S.와 Kim, H. S.(2000)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의 성격특성 측정도구 중 정신신체 증상 호소성향 영역의 10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범위는 6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6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신체증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5 이었다.

● 지각된 속박감 측정도구

지각된 속박감(Perceived Entrapment)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매우 동기화되어 있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며(Brown, Bifulco, & Harris, 1987), 본 연구에

서 지각된 속박감은 청소년기 여성이 학업, 가정, 사회 및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매여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각으로서,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한 속박감 척도(The Entrapmen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외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탈출 동기와 그로 인한 속박감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외적 속박감 10문항과 내적 감정이나 사고에 의해 유발된 탈출동기와 그로 인한 속박감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내적 속박감 6문항의 총 16문항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5였으며, 영역별 Cronbach's alpha는 외적 속박감 0.93, 내적 속박감 0.91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6년 8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로, 먼저 본 연구자가 직접 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 목적과 자료수집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하고 보건교사의 협조를 통해 학교관계자의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작성한 질문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제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열등감에 따른 제 변수의 평균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열등감, 정신신체 증상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는 편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1학년이 47.9%(252명), 2학년이 52.1%(274명)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1.0%(214명), 기독교가 28.5%(149명)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42.3%(215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56.5%(286명)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35.7%(177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526)

Variables	Category	N(%)
Grade	1	252(47.9)
	2	274(52.1)
Religion	No	214(41.0)
	Catholic	78(14.9)
	Christian	149(28.5)
	Buddhism	71(13.6)
	Other	10(1.9)
	Missing	4
Level of education of father	Elementary	6(1.2)
	Middle	22(4.3)
	High	215(42.3)
	Undergraduate	181(35.7)
	Graduate	84(16.5)
	Missing	18
Level of education of mother	Elementary	4(0.8)
	Middle	39(7.7)
	High	286(56.5)
	Undergraduate	130(25.7)
	Graduate	47(9.3)
	Missing	20
Occupation of father	Profession	51(10.2)
	Technical job	69(13.8)
	Office worker	129(25.9)
	Laborer	11(2.2)
	Business	177(35.7)
	Other	59(11.8)
	None	3(0.6)
	Missing	27
Occupation of mother	Housekeeper	235(47.4)
	Part time job	51(10.3)
	Full time job	210(42.3)
	Missing	30
History of smoking	No	504(97.1)
	Yes	15(2.9)
	Missing	7
History of alcohol	No	444(86.3)
	Yes	71(13.7)
	Missing	11
History of drug abuse	No	511(98.7)
	Yes	7(1.3)
	Missing	8
History of sexual relationship	No	520(99.6)
	Yes	2(0.4)
	Missing	4

47.4%(235명)가 가정 주부였다. 응답자 중 흡연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학생은 2.9%(15명), 음주는 13.7%(71명), 성경험이 있는 학생은 0.4%(2명), 약물 복용 경험은 1.3%(7명)이었다.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열등감 정도는 평균 83.48점이었으며, 하부 요인의 평균은 신체적 열등감 21.66점, 사회적 열등감 22.82점, 가정적 열등감 15.39점, 학업적 열등감 23.61점이었다. 지각된 속박감 정도는 평균 41.25점으로, 하부요인의 평균은 외적 속박감은 26.98, 내적 속박감은 16.57이었다.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18.40점, 정신신체 증상은 평균 25.08점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526)

Variables	Mean(SD)	Range	
		Min.	Max.
Inferiority	83.48(24.88)	40	151
Physical inferiority	21.66(6.66)	10	42
Social inferiority	22.82(8.46)	10	47
Domestic inferiority	15.39(5.88)	10	41
Scholastic inferiority	23.61(8.21)	10	46
Perceived entrapment	41.25(14.75)	16	80
External	26.98(9.57)	10	50
Internal	16.57(7.23)	6	30
Depression	18.40(9.47)	0	51
Psychosomatic symptoms	25.08(9.54)	10	60

열등감에 따른 제 연구변수의 차이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열등감 평균인 83.48점을 기준으로 열등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이분하여 제 연구변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열등감 정도가 열등감 평균 점수보다 높은 대상자는 47.1%(248명), 평균보다 낮은 대상자는 52.9%(278명)이었다.

먼저 지각된 속박감의 경우 열등감이 높은 군이 47.24점, 낮은 군이 35.95점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44, p<.0001$). 속박감의 각 요인별로는 외적 속박감은 열등감이 높은 군이 30.74점, 낮은 군이 23.66점 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07, p<.0001$). 내적 속박감 역시 열등감이 높은 군이 16.57점, 낮은 군이 12.28점이었으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8.45, p<.0001$).

우울은 열등감이 높은 군이 20.88점, 낮은 군이 16.22점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78, p<.0001$). 한편 정신신체 증상은 열등감이 높은 군이 27.11점, 낮은 군이 23.32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60, p<.0001$).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열등감은 지각된 속박감($r=.45, p<.0001$), 정신신체 증상($r=.24, p<.0001$), 우울($r=.33, p<.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된 속박감은 정신신체 증상($r=.50, p<.0001$), 우울($r=.66, p<.0001$)과 정신신체증상은 우울($r=.51, p<.0001$)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열등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속박감, 정신신체 증상, 우울정도가 높아지고, 지각된 속박감이 높을수록 정신신체 증상과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s	Inferiority	Perceived entrapment	Psychosomatic symptom
Perceived entrapment	.45****		
Psychosomatic symptoms	.24****	.50****	
Depression	.33****	.66****	.51****

**** $p<.0001$

열등감,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열등감과 지각된 속박감, 열등감과 우울, 열등감과 정신신체 증상, 지각된 속박감과 우

Table 3. Means Difference of Research Variables by the Level of Inferiority (N=526)

Variables	High inferiority (n=248)		Low inferiority (n=278)		t	p-valu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erceived entrapment	47.24(13.35)	35.95(13.92)			9.44	.000
External	30.74(8.67)	23.66(9.12)			9.07	.000
Internal	16.57(5.84)	12.28(5.73)			8.45	.000
Depression	20.88(9.34)	16.22(9.06)			5.78	.000
Psychosomatic symptoms	27.11(8.81)	23.32(9.84)			4.60	.000

울, 지각된 속박감과 정신신체 증상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등감과 우울, 열등감과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 모두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기본 조건(Bennet, 2000)이 충족되었다.

열등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속박감을 통제한 후 열등감과 우울의 상관관계($r=0.05$, $p=0.25$)는 통제전보다 낮아졌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열등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Figure 1).

열등감과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속박감을 통제한 후 열등감과 정신신체 증상의 상관관계($r=0.02$, $p=0.63$)는 통제 전보다 낮아졌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열등감과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Figure 2).

논 의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열등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 결과 열등감의 점수를 보면, 신

체적 열등감은 21.66점, 사회적 열등감은 22.82점, 가정적 열등감은 15.39점, 학업적 열등감은 23.61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학업적 열등감과 사회적 열등감 순으로 열등감 정도가 높았다. 이는 Kim과 Kim(2006)이 본 연구와 동일한 열등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신체열등감 21.66점, 사회 열등감 22.74점, 가정열등감 16.76점, 학업열등감 24.03점과는 유사한 결과이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신체 열등감 15.60점, 사회 열등감 16.68점, 가정열등감 12.68점, 학업열등감 19.60점 보다 높은 점수로 고등학생들의 열등감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여학생은 인간관계와 생활 내용이 확대되고 급변하는 발달 과정상의 특성으로 인해(Park et al., 2004), 가정, 사회, 학교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열등감을 경험하고 있으나, 특히 열등감 요인 중 학업적 열등감과 사회적 열등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고등학생에게 입시와 관련된 학업적인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서 사교성, 성격, 인기, 타인의 인정 등과 같은 사회적 열등감 요소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열등감 수준과 지각된 속박감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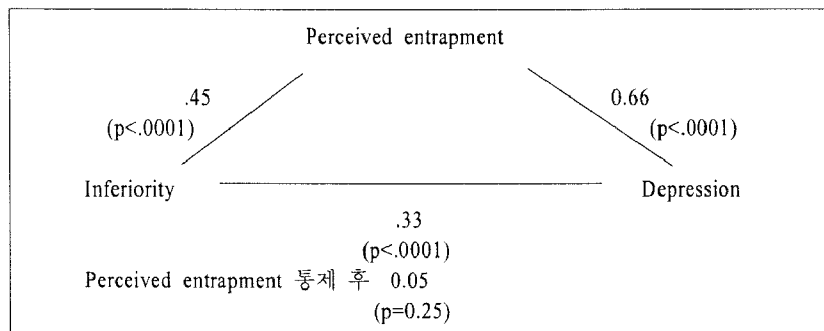


Figure 1.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and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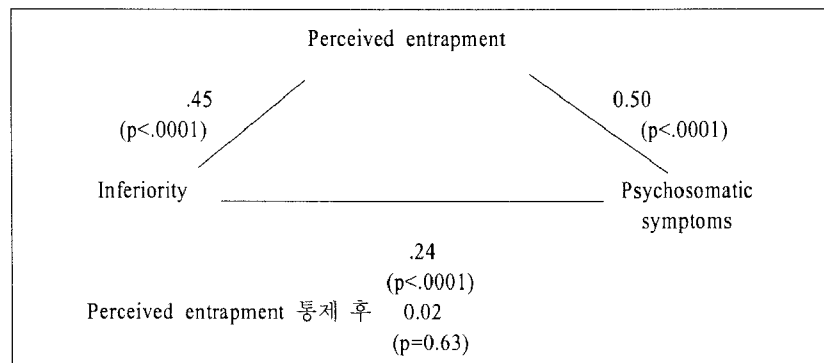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and psychosomatic symptoms

등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외적 속박감 및 내적 속박감이 모두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열등감이 높을수록 지각된 속박감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보고된 열등감과 지각된 속박감과의 관계를 파악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없으나, Cheon(2006)이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기 여성의 지각된 속박감 유형을 6가지로 제시하면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제약,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지나친 의식, 가정환경 및 교육환경, 부모와 교사와의 대인 관계, 대학 지향적 사회적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교육현실, 성취지향적인 자신의 성향에 비해 이에 부응하지 못함에 대해 속박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신체, 가정, 학업,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열등감(Kim, 1995)과 속박감이 관련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심한 열등감은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 부정적 개념에 사로잡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부정적 정서를 발전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열등감 수준과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의 관계에서는 열등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이 각각 모두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열등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정신신체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과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중, 고등학생 587명을 대상으로 한 Lee(2003)는 열등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정신건강 문제가 많았고 자존감 정도가 낮았으며, 열등감 정도와 정신건강 문제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존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Goodwin과 Marusic(2003)은 15-19세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열등감이 높은 청소년이 열등감이 낮은 청소년보다 우울 발병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연령, 성별, 인종, 결혼상태, 경제 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우울을 통제한 후에도 열등감은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열등감이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문제의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열등감과 제 변수와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열등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등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가 어떠한 심리내적 변화과정을 거쳐 부적응과 관련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속박감을 포함하여 그 매개 효과를 파악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Willner와 Goldstein(2001)은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패배감, 속박감, 우울을 측정

한 연구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제하기 전에는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통제 후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우울증 과거력이 있는 대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한 Sturman과 Mongrain(2005)도 내적 속박감은 자기비판과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열등감 정도가 높을수록 열등감과 관련된 내·외적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속박감의 지각은 청소년기의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 등의 부정적 건강 결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은 청소년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 정서로 속박감을 지각하게 되고, 지각된 속박감이 열등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 동의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 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526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로 열등감 측정도구, 지각된 속박감 측정도구, 우울 측정 도구, 정신신체 증상 측정도구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여학생에서 열등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지각된 속박감, 우울, 정신신체 증상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등감은 지각된 속박감, 정신신체 증상,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각된 속박감은 정신신체 증상 및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신신체증상은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열등감과 정신신체 증상의 관계에서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열등감과 우울의 관계에서도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청소년 여학생의 정신신체적 건강문제로서 우울 및 정신신체증상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왔지만 이 시기 발달 특성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환경 특성을 고려한 연구변인으로서 열등감을 포함시키는 연구는 간혹 학 분야에서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인 열등감을 포함하여 심리내적

불균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각된 속박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증상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대두된 지각된 속박감과 정신건강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반복 연구를 시도하여 지각된 속박감에 대한 연구 유용성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열등감과 우울 및 정신신체증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지각된 속박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열등감과 정신건강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여학생의 열등감, 지각된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에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여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론적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덧붙여,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여학생에서 열등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우울 및 정신신체 증상과 같은 부적응적 건강문제의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특히 대상자가 지각한 속박감을 고려하여 개인적 상황에 적합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여학생의 지각된 속박감 유형에 따라 열등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나아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 건강결과에 속박감 및 열등감이 어떻게 관련되어 나타나는가를 규명하는 좀 더 구체화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References

Adele, D. H. (1997). *Adolescent medicine(3rd ed.)*. Stanford : Appletion and Lange.

Battle, L. S.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depression. *Psychol Rep*, 42, 745-746.

Bennet, J. A. (2000). Mediator and moderate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difference. *Res Nurs Health*, 23, 415-420.

Brown, G. W., Bifulco, A., & Harris, T. O. (1987). Life events, vulnerability and onset of depression: some refinement. *Br J Psychiatry*, 150, 30-42.

Brown, G. W., Harris, T. O., & Hepworth, C. (1995). Loss, humiliation and entrapment among women developing depression: A patient and non-patient comparison. *Psycholo Med*, 25(1), 7-21.

Cheon, S. H. (2006). *The perceived entrapment types and health of adolesce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Cho, S. J., Jeon, H. J., Kim, M. J., Kim, J. K., Kim, U. S., Lyoo, I. K., & Cho, M. J. (2001).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adolescents in an urban area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4), 627-639.

Chon, K. K., & Lee, M. G.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 Clini Psychol*, 11(1), 65-76.

Chun, Y. J. (2001). Path model for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on. *J Korean Home Econ Assoc*, 39(1), 151-167.

Gilbert, D. A., & Allan, S. (1998). The role of defeat and entrapment(arrested flight) in depression: An exploration of an evolutionary view. *Psychol Med*, 28(3), 585-598.

Gilbert, P., Irons, C., Olsen, K., Gilbert, J., & McEwan, K. (2006). Interpersonal sensitivities: Their links to mood, anger, and gender. *Psychology Psychother*, 79, 37-51.

Goodwin, R. D., & Marusic, A. (2003). Feelings of inferiority and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mong youth. *Croat Med J*, 44(5), 553-557.

Ha, E. H., Oh, K. J., & Song, D. H. (2003).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comorbid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Korean J Psychol*, 22(2), 127-144.

Kim, H. S., & Kim, H. K.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s of inferiority and mental health of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1(1), 37-69.

Kim, H. S., & Kim, H. S. (2000). *Questionnaire for mental health status for korean adolescents*.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Kim, I. M. (1995). *The effect inferiority solution program on inferiority solution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Kim, J. H. (2002).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inferio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im, K. H. (1999). The effects of adolescent girl's self-esteem the preoccupation to be thinner and dieting on binge eating. *Korean J Heal Psychol*, 4(1), 155-165.

Kim, K. H. (2004). Depression and suicide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 55-68.

Kim, M. H., & Park, S. W. (2004). The effect of the MBTI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inferiority feeling and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of the girls in vocational high schoo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11, 19-43.

Kim, O. S., & Kim, K. H. (2000). Weight,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females. *J Korean Acad Adult Nurs*, 12(3), 396-406.

Lee, M. H.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eriority and psycho-maturity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Park, H. S., Koo, H. Y., & Jang, E. H. (2007). The study on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korean female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7(5), 715-723.

Park, J. A. (2000).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feriority*

- and the disposi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Y. J., Han, K. S., Shin, H. J., Kang, E. C., Chun, S. H., Moon, S. H., Lee, Y. S., & Kim, H. S. (2004). Prediction on the negative outcomes of anger in female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4(1), 172-18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o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 Measurement*, 1, 385-401.
- Sturman, E. D., & Mongrain, M. (2005). Self-criticism and major depress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Br J Clin Psychol*, 44, 505-519.
- Yim, G. H. (2000). *High school students' inferiority feelings and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Willner, P., & Goldstein, R. C. (2001). Mediation of depression by perceptions of defeat and entrapment in high-stress mother. *Br J Med Psychol*, 74, 473-485.
- Wilson, G. S., Pritchard, M. E., & Revalee, B. (2005). Individual difference in adolescent health symptoms: The effects of gender and coping. *J Adolesc*, 28, 369-379.
-